9.26. 현소강

불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쉽게 운명의 무게를 받아들인다. – 이승우, <생의 이면>

문학은 불행한 이야기가 더 많다. 왜? 예술적 행위들은 결핍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 현실의 아픔 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것. 모든 예술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매치되는 경우가 꽤 많다. 예술적 성과 뒤에는 창조자의 불행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

불행의 이중적인 의미: 체념과 관련된다. 사람이 실패와 좌절, 배반이 거듭되면 삶에 대한 큰 기대를 품지 않게 된다.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됨. 사람의 인생은 냉혹해서 대체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살기가 쉽지 않음. 소망대로 이루어지면 삶이 너무 쉽겠지.

불행에 단련돼 있는 자아. 그들은 불행이 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불행에 맞서기도 하고. 크게 기대하지도 크게 실망하지도 않는다.

* 체념과 절망 / 불행에 단련된 강인한 자아

-

무정 – 이광수가 우연히 행운을 잡은 것이 아니다. 이광수는 너무나 불행한 조건 속에 있었다.

* 김동인의 『創造』(1919) 창간과 더불어 동인지 시대가 개시된다.
* 동인지 시대: 무정이 있고 신문학을 청년들이 시작하게 된다. 구세대의 문학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학. 감수성, 표현방식까지 전혀 다른 신문학은 경서와 한학이 아닌 서구에서 왔다. 일본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배웠고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창조했다. 이것들은 집단현상으로 나타났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창작을 하고 작품집을 낸 것. 그것이 동인지이다. 무정의 성과와 더불어 주목되는 현상으로서 동인지가 거론되는데, 그 첫 세대가 김동인이다. 김동인의 첫 작품인 <약한자의 슬픔>, <마음이 약한 자여> 등. 그는 단편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자기 스스로 소설 이론을 전개했던 사람이다. 그는 초창기 이론가였고 그 수준도 높다. 소설작법이라는 1920년대 논문에서 ‘초점화’를 거론. 그로부터 반세기 후에 주네트의 초점화 이론이 등장했다. 김동인은 비평가로서도, 근대소설사를 쓴 사람으로서도 활동했고 따라서 비중과 성과와 역할이 매우 크다.
* 창조 동인지: 동인지 시대의 출발이자 신호탄. 김동인은 평생 이광수와 라이벌 의식을 가졌지만 이광수가 이미 너무나 대단한 존재여서, 그를 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다. 그의 문학은 이광수와의 대척점에서 형성된다. 이광수가 계몽이라면 김동인은 순수예술. 이광수는 불행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김동인은 평양 갑부의 둘째 아들이었다. 김동인은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예술에 모든 열정을 다 바쳤다. 그가 미적지향을 최고로 삼은 것은 그가 삶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 안하무인, 천상천하유아독존. 막대한 재력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일화들…) 2.8독립선언 이전에 동경유학생들의 많은 회합이 있었는데, 당대 조선출신 유학생들은 그만큼 민족의식이 투철했다. 국권상실 상태에서 식민 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은 사명감을 안 갖기가 어려웠음(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암암리에 정치성을 띤 유학생 단체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이 결집되어서 2.8선언이 나온 것. 그때 김동인과 친구들이 2.8 회합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회고한다 : 정치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술에 힘쓰겠다. 나중에 그들과 함께 창조를 설립한다. 정치성 강한 일들은 이광수 세대(10년정도 앞섬)가 맡았고. 창조 창간해가 1919인 것은 우연이 아님. 그렇게 동경에서 최초의 동인지 창조가 창간되었다.
* 이전에도 학지광 등 학술간행물은 많았지만, 창조는 순문학을 표방한 최초의 동인지라는 타이틀을 갖는다. 김동인은 소망 하나를 이룬 것이다. 조선 문학의 개척자로서 이름을 올렸으니까. 김동인은 단편작가라도 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첫 테이프 끊으려던 염상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염상섭은 이미 시작된 판도를 뒤집을 수 없음을 알고 완전히 혁신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 『창조』(1919) 『廢墟』(1920) 『白潮』(1922) 등의 동인지는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문학가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 평안도 지역(평북, 평양)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었다. 북경과 가까워서. 그래서 평양끼리 모이고 서울경기끼리 모여서 라이벌 의식을 갖기도 했음. <백조>는 감성적 낭만주의를 표방했고, 서정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렸던 동인지다. 그 이후로도 많은 동인지들이 등장. 근성, 연대, 장미 등등. 1920년대 초에 동인지들이 많이 나오고 작가들은 그를 통해 문학활동을 한다. 문학은 매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대에는 동인지였다. 동인지를 통해 문학이 창작,유통, 수용되었다 🡪 동인지 시대. 그 이후로 개벽 등 간행물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동인지 시대는 사라진다.
* 동인지 시대가 낳은 소설가로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김동인과 염상섭, 현진건을 꼽을 수 있다.
* 창조동인 전영택. 그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문학과 멀어졌다. 문학사의 첫 세대들. 시인으로서는 이상화도 있고. 박종화(절망적 서정시 🡪 역사서). 동인지들은 대체로 단명하였다. 제일 길게 갔던 것이 역시 김동인이었다. 당시의 열악했던 사정들. 동인지만 있던 시대는 지나갔지만,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대의 문학을 대표했던 때는 1920년대였다. 동인지 외에는 매체가 없었던 시대. 그리고 80년대 초에 동인지 비슷한 시대가 한번 더 있었는데, 그때의 문예지들이 신군부에 의해 많이 폐간되었기 때문이다.
* 동인은 대체로 시가 더 많았다. 소설은 덩치가 커서 움직임이 둔했다. 80년대도 시 동인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 곽재구, 안도현 등도 동인활동을 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면서 동인지는 조금씩 퇴조하고 문학활동의 지면이 더 광범위해지기 시작했다. (신문들의 문예면) 1924년에 조선문단도 창간되었다.
* 김동인은 단편창작에 주력했고 나름의 창작이론을 전개했다. 염상섭의 초기소설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암야>, <제야>. 염상섭의 초기 3부작은 매우 파격적으로, 김동인과 이광수를 넘어서겠다는 집념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후에는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세태소설을 쓰게 된다. 현진건은 현실의식이 첨예했고, 지사적인 인물이었다. (동아일보의 편집국으로 있었을 때 손기정의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사건을 일으킴. 비탄과 술에 쩔어 살았고… 선비로서의 지조?) 문학적으로는 민족주의적 리얼리스트였다. 1920년 이후에 등장한 사회주의 문학과 대립한 민족주의 문학의 진영에서 리얼리즘적 최고성취를 보여주었다. <적도> 등.

**2-3. 이념의 서사화, 서사의 이념화 (1920년대 후반)**

* 카프(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의 결성과 더불어 우리 문학은 논쟁과 토론의 시대로 접어든다.
* 이른바 이념의 시대, 논쟁과 토론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 현상은 자체적인 내적 성숙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그 혁명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세계혁명을 이루어 내겠다는 희망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 노동자 국제 회의(인터내셔널 1,2,3차)/코민테른(결정되면 1차 테제… 이런 식으로 논의하고 토론이 채택되었다 🡪 이가 민족해방운동가들에게 전달됨) : 이게 가능했던 것은 민족해방운동세력과 맑시즘 사이에 접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식민 종주국들이 다 미국 유럽이라 식민국들에게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계급투쟁을 진행하는 소련뿐이었다. 맑시즘의 종주국이라기보다는 해방을 지원하는 국가로 보였다는 것 식민지 해방운동가들은 소련의 지원과 협력, 원조에 기대를 걸고서 코민테른이 열린다고 하면 갔다. 한편 소련은 그들을 통해 맑시즘의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때 논란도 많았고.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사회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 후반 해방운동가 지식인들을 통해 그렇게 유입되었다.
* 목적의식과 주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소설 창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 목적의식이 뚜렷한 문학. 미를 추구한다는 건 내용적인 면에서 목적은 없는 것. 그런데 카프문학은 너무나 선명한 목적성을 띠었다. 결과적으로 문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때에나 80년대에나. 주제나 목적의식을 지나치게 뚜렷하다 보니 작품으로서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박영희의 소설들, 김기진의 소설들. 이미 작가가 흥분해 있고, 논설들이 마구 펼쳐지는데 결국 문학의 본령인 형상화의 측면에서 부족해져버렸다.
* 당시 작가들은 문학이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장 강하게 제기한 사람들이었다. 목적이자 수단으로서의 문학을 생각했고 후에 평가가 갈리기도 했다.
* 카프의 논쟁은 크게 내용 형식론, 대중화론, 목적의식론, 창작방법론 등으로 전개된다.
* 내용형식론은 김기진과 박영희가 붙었다. 일본에서 나프가 결성되었듯이 조선에서 카프가 결성된 것. 김기진과 박영희는 예술성과 목적의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기진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논쟁의 결과는 박영희의 승리로 끝났다. 김기진이 항복한 것인데, 카프 1세대의 좌장들이 싸우면 조직의 와해가 야기될 수 있어서 김기진이 양보했다는 설도 있고. 더욱 원리주의자, 더 선명한 친구들이 일본에서 귀국한다. 이들이 카프 2세대. (임화 등 북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 그들이 논쟁에서 1세대를 물리치고 조직을 장악한다. 무엇이 옳은지 평론으로 과시하는 것. 그래서 그 시대가 비평, 토론, 논쟁의 시대로 불린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문학성과는 낮았을지 모르나 비평이 매우 활발하고 문학에 대한 문제들(문학이 무엇을 할 것인가)을 아주 활발하게 제기했던 시절이었다. 해금문인조치 이후로 더 주목받기도 했었고. 식민현실에 대한 첨예한 인식들이 대두되고.
* 목적과 관련된 논쟁 /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회색분자(아나키스트)들을 쳐내는 논쟁 : 그런 과정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밀리면 카프를 나갔다. 점점 더 선명한 방향으로 진행됨. 그런데 그 선명한 방향이 일제의 눈에 점점 거슬리게 되고, 30년대 만주사변 이후 사상통제가 더 심해지면서 단체들이 해산을 맞고 카프는 사회주의 집단으로 지목되어 1934년에 해체된다.
* 창작방법론은 카프의 문학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 창작의 성과가 적은가? 아니. : 카프의 중요한 문학적 성과는 1930년대 이후 카프 출신 작가들에 의한 소설이 집필되면서 진가를 드러낸다. 이기영, 김남천 등. 그들은 20년대에는 이런 소설을 내지 못했고. 광장에서 외칠 때는 좋은 작품을 쓰지 못했지만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면서 쓰게 되었다.
* 조명희와 최서해의 소설은 도식성과 관념성을 극복한 계급문학의 성과로 평가된다.
* 서생들이었던 일반 카프와는 달리 최서해의 인생은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계급투쟁 문제에 가장 부합하는 글을 썼다. 최서해는 공식적으로 카프의 맹원은 아니었다. 오히려 카프의 공격을 받던 이광수에 가까웠다. 둘이 실제로 가까웠고.
* 동반자 작가로 출발하여 토속적인 성애의 세계를 그린 이효석의 소설도 주목된다.
* 동반자 작가는 카프와 뜻은 같이하지만 가입은 안 한 사람. 많았다. 이효석, 채만식 등. <메밀꽃 필 무렵>은 전혀 동반자 상황이 없긴 하지만.